

# 익산 쌍릉 인골, 백제 무왕 '가능성'

관련 전문가 참여... 인골의 성별·키·식습관·사망시점 등 정밀 분석  
최신 공학기술 반영해 모형화·3D 프린팅 통해 디지털 자료도 구축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지난 4월 익산 쌍릉(대왕릉)에서 발견된 인골에서 남성 노년층의 신체특징과 병리학적 소견을 확인, 백제 무왕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지난해 8월부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의 하나로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시와 공동으로 쌍릉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석실 끝부분에서 여태까지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던 인골 조각이 담긴 나무상자를 발견했다. 100년 전 일제가 발굴하면서 다른 유물들은 유출한 반면, 이는 꺼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이 인골자료가 무덤의 주인과 연결된다면, 백제 무왕의 능인지를 결정짓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고고학과 법의인류학, 유전학, 생화학, 암석학, 임산공학, 물리학 등 관련 전문가들을 모두 참여시켜 인골의 성별, 키, 식습관, 질환, 사망시점, 석실 석재의 산지, 목관재의 수종 등을 정밀 분석했다.

102개의 조각으로 남아있던 인골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팔꿈치 뼈의 각도(위팔뼈 인측위관절용기 돌출양상), 목덜뼈(발목뼈 중 하나)의 크기, 납다리뼈 무릎 부

위(면쪽 뼈 부위)의 너비가 남성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납다리뼈의 최대 길이를 추정하여 산출한 결과 키는 161cm에서 최대 170.1cm로 추정된다. 훨씬 후세대에 속하는 19세기 조선 시대 성인 남성의 평균키가 161.1cm인 것을 감안한다면 비교적 큰 키이다.

나이는 최소 50대 중년층에서 60~70대 장·노년층으로 봐도 큰 무리가 없다. 목의 율대뼈가

있는 갑상연골에 골화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골반뼈 결합면의 표면이 거칠고, 작은 구멍이 많이 관찰되며, 불규칙한 결절이 있다.

한편, 뼈가 심하게 부식되어 유전자 분석은 쉽지 않았다. 추출한 콜라겐의 탄소 안정동위원소 분석으로 벼, 보리, 콩의 섭취량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고, 질소 안정동위원소 분석으로는 어패류 등의 단백질 섭취도 확인했다.

최신 공학기술이 반영된 이번 연구에서는 뼈의 3차원 입체(이하 3D) 모형화와 3D 프린팅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자료도 구축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지난 4월 익산 쌍릉(대왕릉)에서 발견된 인골에서 남성 노년층의 신체특징과 병리학적 소견을 확인했다.

## 백제왕궁 '익산문화재 야행' 내일 개막

천년기원 탐돌이·꽃등 만들기·무형문화재와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

익산시가 주최하고 익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익산문화재 야행'이 백제왕궁 일원(왕궁리유적, 탐리마을, 고도리석불)에서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오후 6시부터 밤11시까지 열린다.

익산 문화재 야행(夜行)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백제왕궁' 주변을 야간에 개방, 지역의 역사를 이해하고 체험해보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익산시는 지난해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행사이다. 이 행사는 천년고도 익산의 역사·문화 향기를 체험하며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농촌형 야행으로 기존의 도심형 야행들과 차별화된 모습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잠 못드는 한여름밤 왕궁리 오층석탑을 돌며 소원을 비는 '천년기원 탐돌이', 서동선화 캐릭터를 찾아 사진을 찍는 '숨은 서동선화 찾기', 달빛속에서 빛으로 태어나는 '꽃등 만들기', 더위야 물러가라~ 신명나게 진행되는 '무형문화재와 어울림 한마당'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맞을 예정이다. 또한 행사기간에는 행사장까지의 교통불편

을 해소하기 위해 익산왕궁리유적 행사장에서 시내를 잇는 야간 무료셔틀버스가 운행된다.

야간 셔틀버스는 20일, 21일 이틀 동안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시내권

과 왕궁리유적까지를 왕복하며 교통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익산 문화재야행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익산의 문화재들과 함께하는 체험형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백제왕도 익산에 사는 자부심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채로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품격 있는 문화도시 행사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가 주최하고 익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익산문화재 야행'이 백제왕궁 일원(왕궁리유적, 탐리마을, 고도리석불)에서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오후 6시부터 밤11시까지 열린다.



지난 17일 군산대학교 아카데미홀에서 '군산시립교향악단의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시업과 연계하여 '군산대학교 가족회사와 함께하는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 군산대, 가족회사와 함께하는 음악회 성료

시립교향악단 연주 등 선보여... 25일 방송

군산대학교(총장 광병선)와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지난 17일 군산대학교 아카데미홀에서 '군산시립교향악단의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시업과 연계하여 '군산대학교 가족회사와 함께하는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군산대학교 330여 가족회사 임직원과 가족 및 군산시민을 초청한 음악회에는 군산대학교 총장 및 군산시장, 군산시의장을 비롯, 각계각층에서 700여명이 참석하여 음악을 통한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음악회는 군산시립교향악단 백정현 상임지휘자의 해설과 지휘 하에 주제의 "경기병 서곡", 요한 스트라우스의 "천둥번개 폴카", "근심걱정 없이 폴카", 엔리코 모리코네의 "시네마 천국", 앤더슨의 "나팔수의 휴일" 등의 친숙한 클래식곡들이

수준 높게 연주되었고 찬조출연한 군산대학교 교수합창단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You Raise Me Up"이 어우러져 공연을 더욱 무르익게 하였다. 이날 녹화된 공연 내용은 '금강방송'을 통해 25일(수)부터 5회에 걸쳐 방송될 예정이다.

음악회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위축된 군산 지역 제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학협력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동익 군산대학교 LINC+ 사업단장은 "다양한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 김동용 명예교수, 병풍 작품 박물관에 기증

백당 윤명호 화백 1985년작... 4계절 담은 8폭 병풍

전북대학교박물관(관장 김성규)이 김동용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명예교수로부터 병풍 1점을 기증받았다. 기증된 작품은 전라북도 원로작가인 백당(白堂) 윤명호(尹明鵠) 화백이 1985년에 그린 산수도 8폭 병풍이다.

산수도 8폭 병풍은 우리의 사계절을 4구(句) 화제(題)로 절묘하게 표현한 수작이다. 매화가 푸른 숲을 이루고(梅林消流), 강산이 봄으로 물들면서(江山春色)로 시작되는 이 병풍은 봄 2폭, 여름 3폭, 가을 2폭, 겨울 1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당 선생의 화사하면서도 절제되고 부드러운 색채와 구도를 엿볼 수 있다.

백당 윤명호(1942~) 화백은 전주에서 태어나 한국화가로서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해왔다. 국전과 대전 등 다수의 전시회에서 특선과 입선하였으며, 초대작가와 심사위원 등으로도 활동하였다.

그러나 그림 인생 60년을 목전에 두던 2016년 6월에 작업실(정우원)에 화재가 발생해 70여 점의 작품이 전소되는 일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 12월, 한국화 인생 60년을 기념하는 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윤 화백이 40대에 그렸던 산수화 병풍이 박물관에 기증되어 많은 사람들과 공유될 수 있게 된 것은, 그의 작품을 사랑하고 아끼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재훈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